

전문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최선미*

¹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The Effect on Employment of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in College Graduates

Sun-Mi Choe*

¹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준비활동의 취업 효과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학생이 개인차원에서 준비하는 자격증, 직업훈련 등과 함께 대학 차원에서 운영하는 진로선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1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의 전문대졸자 3,249명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특성에서는 졸업학점이 높을수록, 출신대학이 비수도권일수록 취업 확률이 더 높았다. 전공계열은 준거집단 대비 의약, 교육, 공학, 사회, 자연 계열 순으로 취업 확률이 높았다. 취업준비활동에서는 국가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면접기술 & 이력서작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졸업 전 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업훈련, 진로·취업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진로상담 프로그램, 취업캠프, 대학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졸업 전 취업목표 유무 등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mployment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that college students experience, especially focused on analyzing employment effects of college employment-related activities such as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 along with individual preparation activities such as qualification, vocational training, etc. It perform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2011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of 3,249 college graduat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college characteristics, the higher grade point average was and the more college was located in non-metropolitan area, the higher employment probability was. In the case of major field, Medicine, Education, Engineering,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in highest first order had employment probability higher than the reference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qualification, interview skill & resume description skill program participation, and job search experience before and after graduation among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had an effect on employment. The rest, that is, vocational training, career-employment curriculum, work experience program, career counseling program, employment camp, in-school job experience, employment goal status before gradua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employment.

Key Words : National Qualification, Career Choice & Employment Support Program, Vocational Training,

1. 서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하게 하는데 있다. 그런데 자아실현은 일을 통

하여 성취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교육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위해 초·중학교에서는 기초 능력과 진로탐색을,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직업 준비

*Corresponding Author : Sun-Mi Choe(Kyonggi Univ.)

Tel: +82-31-513-9091 email: yin123@hanmail.net

Received March 8, 2015

Revised April 6, 2015

Accepted April 9, 2015

Published April 30, 2015

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2].

학문 연구와 교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실무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과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원활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은 크게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자격, 직업훈련, 외국어 등과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들과 교과목 참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격(qualification)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발휘한다. 자격은 학력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를 알려 주는 신호기체(signal)이다. 자격은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근로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직업능력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4]. 특히 취업에 있어서 학벌 효과가 일반대학보다 약한 전문대졸자에게는 자격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자격증과 함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체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취업준비 변인으로 활용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숙[5]은 취업준비 요인으로 자격증 수, 어학연수, 영어 사교육, 구직시점을, 박가열 등[7]은 자격증 보유 여부, 직업훈련 경험, 어학연수 경험, 학점으로 구성했다. 이승근 등[13]은 자격증 유무, 자격증 수, 국가자격증 수, 취업목표 성공, 취업 사교육 경험, 취업전략을, 박성재[8]는 자격증과 직업훈련을 취업준비로 활용했다.

산업인력을 양성해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선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대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모든 지원활동을 말한다[15]. 크게는 교과목, 상담, 행사, 교육훈련, 취업진산망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목은 진로취업교과목, 산학협력교과목, 현장실습교과목 등이 있다. 상담은 진로취업상담, 진로검사, 입사지원서, 면접클리닉, 취업알선, 멘토링 등이 있다. 행사로는 진로취업특강, 진로취업캠프, 취업채용설명회, 교내 취업박람회 등이다. 교육훈련에는 자격증취득지원, 영어시험지원, 취업스터디, 취업동아리,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십) 등이 있다. 끝으로 취업진산망 운영을 통해 취업지원홈페이지, 온라

인프로그램, 취업DB이용, e포트폴리오 등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대학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고 취업지원기구와 학교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투입 등 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진로선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취업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는 아직 없다.

대학생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은 그동안 일반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문대학생만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일반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5, 10, 11]와 일반대와 전문대를 함께 분석한 연구[6, 7, 8, 9, 14, 16]가 대부분이다. 이 중 [8, 16]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각각 분리해서 분석해 전문대의 취업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전문대졸자만의 취업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13]는 많지 않다.

전문대와 일반대의 교육 목적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는 전문대학생만의 취업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전문대졸자 취업 효과 실증 연구들은 2005년도 이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분석해 현재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8, 13, 16].

2~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라는 측면에서 직무능력을 갖추고 취업에 임해야 하는 전문대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취업준비활동들의 취업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준비활동의 취업 효과를 밝혀 그들이 효율적으로 취업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2012년에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1GOMS1)’를 활용해 최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전문대학생의 개인적 취업준비 활동 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선택과 취업준비를 돕는 프로그램들과 교과목의 취업 효과를 처음 밝히는 것으로 연구의 의미를 더한다.

연구 내용은 첫째, 전문대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취업 효과를 밝힌다. 둘째, 전문대학생의 대학특성에 따른 취업 효과를 밝힌다. 셋째, 취업준비활동이 취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분석

2.1 개인특성과 취업

전문대학생의 개인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전문대학생의 경우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7, 9, 13]. 출신 고등학교가 전문계고인 경우 취업할 확률이 더 높았다[16]. 특히 여성이 전문계고 출신일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계고 출신의 전문대 졸업자는 자산특수적인 기술 보유가 고용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력과 월평균 가계소득은 취업에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정이 부유할수록 졸업 직후 취업보다는 편입 등 인적자본투자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했다[16]. 박환보[9]의 분석 결과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직업 지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대학특성과 취업

대학 특성에서 학점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대학 소재지에 대한 효과는 전문대졸자만을 분석한 [13]과 [16]의 결과가 다르다. 이승근 등[13]에서는 대학소재지 효과가 없었던 반면에 장기영[16]에서 서울지역 전문대학 출신들이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신 대학의 소재지가 취업여부 보다는 고용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역 출신들이 취업조건에 있어 지방대학에 비해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해석이다[16].

일반대를 포함해서 분석한 박가열 등[7]의 경우 대기업 취업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반대의 경우 대학 서열이 기업의 채용에서 비중 있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의 차이가 취업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대가 기업채용에서 학벌효과가 크다면 이에 비해 전문대는 학벌효과보다는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전공이나 자격증이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다. 전공계열의 취업 효과는 인문계열에 비해 자연계열의 취업확률이 높았다. 또 예체능 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았다[16].

2.3 취업준비활동과 취업

전문대졸자의 경우 자격은 국가자격을 많이 소지하고 있을수록, 민간자격이 적을수록 취업 효과가 높았다[13]. 이는 자격을 무조건 많이 취득하는 것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준비에 자신감을

높여주어 진로결정과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을 합한 전체 자격 보유 수가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6]. 선호직장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학점, 자격증, 자격증 등급, 직업훈련이 취업 효과가 높다는 연구도 있다[14].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전문대졸자만을 분석한 이승근 등[13]에서 취업준비학원에 다닌 경우 취업 확률이 높았고, 장기영[16] 연구에서는 직업훈련경험이 있을수록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졸자를 포함한 박가열 등[7] 연구에서도 직업훈련 경험 여부는 졸업 전후 구직 경험이나 조직 규모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취업확률을 높였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에게 취업 목표를 미리 정하고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능력을 직업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민 등[14]은 전문대와 일반대졸자를 함께 분석한 결과,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 수강 등 취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많았던 학생들이 선호직장으로서의 취업 비율이 높았다. 일반대만을 분석한 이종찬[15] 연구 결과에서는 진로취업교과목이 고용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매년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 등을 조사하는 대졸자 코호트 조사로서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매년 1만 8천 여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졸업 다음해 1차 조사하고 2년 뒤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9월에 조사한 자료(2011GOMS1)를 활용했다. 모집단은 2010년 8월과 2011년 2월 졸업자이다. 총 응답자 18,299명 중에서 전문대 졸업자는 모두 5,460명이다. 여기서 청년의 취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83년 이후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결측치를 제외한 3,249명이 최종 연구대상이다.

3.2 연구대상자의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은 남자 52.6%, 여자 47.4%, 출신고등학교는 일반계열 59.5%, 전문계열 40.5%이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56.6%)이 가장 많았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400만원 미만(65.7%)이 가장 많았다. 대학특성 분포는 수도권이 48.1%, 비수도권이 51.9%, 졸업학점은 4.0 이상 (38.4%)이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은 공학, 사회, 의약, 예체능, 인문,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 분포는 국가자격증 보유 수는 1개 (40.5%)가 가장 많았고, 없는 경우는 39.2%였다. 진로, 취업관련 교과목은 41.3%가 참여했고,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24.9%,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9.9%, 면접기술 &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은 40.7%, 취업캠프는 14.1%가 참여했다. 대학재학 중 일 경험이 있는 경우는 64.2%, 졸업 전에 취업목표가 있었던 경우는 49.3%, 졸업 전후로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5%였다. 끝으로 대학 입학 후 직업훈련 경험은 15.5%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708	52.6
	female	1541	47.4
high school majors	academic	1932	59.5
	vocational	1317	40.5
father's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69	23.7
	high school graduate	1840	56.6
	college degree and more	640	19.7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287	8.8
	between 2 and 4 million won	2134	65.7
	between 4 and 5 million won	434	13.4
	5 million won and more	394	12.1
location	metropolitan	1564	48.1
	non-metropolitan	1685	51.9
grade point average	3.5 or less	1000	30.8
	3.6 to 3.9	1001	30.8
	4.0 or more	1248	38.4
major field	liberal arts	133	4.1
	social education	701	21.6
	education	123	3.8
	engineering	936	28.8
	natural	291	9.0
	medicine	552	17.0
arts & physical	513	15.8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number of qualification	0	1275	39.2
		1	1315	40.5
		2	491	15.1
		3	168	5.2
	career-employment curriculum	yes	1341	41.3
		no	1908	58.7
	work experience program	yes	809	24.9
		no	2440	75.1
	career counseling program	yes	971	29.9
		no	2278	70.1
	interview skills & resume description skills program	yes	1321	40.7
		no	1928	59.3
	employment camp	yes	458	14.1
		no	2791	85.9
in-school job experience	yes	2086	64.2	
	no	1163	35.8	
employment goal status before graduation	yes	1603	49.3	
	no	1646	50.7	
job search experience before and after graduation	yes	1510	46.5	
	no	1739	53.5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yes	502	15.5	
	no	2747	84.5	
total			3249	100.0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 취업준비활동의 취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취업으로 정하였다. 취업의 조건은 조사 시점의 현재 일자리 응답에서 정규직 근로자이다.

설명변수로 개인특성 변인은 성별, 출신 고등학교 계열, 아버지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이다. 대학특성 변인은 졸업학점,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수도권 여부)이다. 취업준비활동 변인은 국가자격증 수, 진로·취업관련 교과목 참여 여부,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참여 여부,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여부, 면접기술 & 이력서 작성프로그램 참여 여부, 취업캠프 참여 여부, 대학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여부, 졸업 전후 구직활동 경험 유무, 직업훈련 횟수, 졸업 전 취업 목표 유무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어학연수나 외국어 관련 변수가 전문대졸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취업준비활동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전문대졸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이승근 등[13]과 장기영[16]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들이 명목척도인 경

우 각각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취업준비활동이 전문대졸자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1단계에서는 개인특성 변인과 대학특성 변인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취업준비활동 변인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단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특성 변인은 모두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근 등[13]에서 성별 효과와 전문계고 출신의 취업결정 확률이 높게 나왔고, 장기영[16]에서 전문대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효과는 부모의 학력이 부(-)적 효과가, 전문계고 출신의 취업확률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대학특성 변인은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졸업학점 변인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취업 확률이 1.295배(=exp(.2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기영[16]과는 일치하지만, 이승근 등[13]과 이영민 등[14] 연구에서 학점이 취업에 효과가 없었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수도권 대학 출신에 비해 비수도권의 취업 확률이 .802배(=exp(-.221)) 가량 높게 나타났다. 장기영[16]의 분석에서 서울지역 전문대학 출신들이 지방권 전문대 출신에 비해 취업할 확률은 낮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승근 등[13]의 연구 결과와는 반대이다.

대학전공 계열에 있어서도 준거집단(예체능) 대비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계열 졸업자들이 취업 확률이 높았다. 준거집단 대비 의약계열 및 교육계열이 취업 확률은 각각 3.983배(=exp(1.382)), 3.393배(=exp(1.222))로 나타나, 계열별로 직업이행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계열은 예체능 보다 취업 확률이 낮았다. 장기영[16]의 전문대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출신이 인문계열에 비해 대기업 취업확률이 높았고, 예체능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 대기업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간 차이는 준거집단이 다르거나

2005년 졸업자와 2011년 졸업자와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취업준비활동 변인들을 추가한 2단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특성 변인 가운데 대학전공(자연계열)의 효과가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변인들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준비활동 변인에서는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면접기술 & 이력서작성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을수록, 졸업 전 후 구직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학생이 자격증을 적게 취득한 경우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1.154배(=exp(.143)) 높다는 것이다. 이승근 등[13]에서도 전문대졸자들이 국가자격증이 많을수록 취업결정 확률이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 박성재[8]에서도 자격증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일반대졸자보다 전문대졸자에게 자격증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전문대학생에게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 신호기제(signal)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특히 학력이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는 일반대졸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학벌위계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전문대졸자에게는 자격증이 신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면접기술 & 이력서작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취업 확률이 1.328배(=exp(.284))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 전 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취업 확률이 1.335배(=exp(.2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 학생들은 졸업학년에 구직기술을 확실히 습득하여 늦어도 마지막 학기 중에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 취업준비활동들은 취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캠프는 1박2일의 1회성 단기프로그램으로 효과가 약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학비와 용돈을 벌기위해 취업 목표와 무관한 직종을 경험하기 때문에 취업시 경력 인정이 어렵다. 직장 체험 프로그램 역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체험한 기업에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로선택과 관련된 상담프로그램과 진로·취업 교과목은 진로지도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작을 수 있다. 이종찬[15]에서도

진로·취업교과목이 고용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취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이는 박성재, 이상준, 이영민 등[8, 12, 14]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강순희 등, 김강호, 박가열 등, 이승근 등, 장기영[1, 3, 7, 13, 16]에서 직업훈련의 취업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번 연구에서 직업훈련의 내용을 분류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전문대졸자가 취업 업체 규모 등을 조건을 따로 분석하지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직업훈련에 대한 취업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문대학생의 취업에서 전공과 자격의 효과가 직업훈련 효과 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whether Employment

Classification	1단계		2단계	
	B(S.E.)	Exp(B)	B(S.E.)	Exp(B)
quantitative	.352 (.398)	1.422	.179 (.409)	1.196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male)	.140 (.111)	1.150	.176 (.112)	1.193
high school majors(academic)	-.206 (.107)	.813	-.157 (.111)	.855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018 (.126)	.982	-.008 (.127)	.992
father's education (college degree and more)	.051 (.161)	1.053	.082 (.162)	1.086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less than 2 million won)	-.052 (.178)	.949	-.051 (.179)	.950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between 4 and 5 million won)	.297 (.226)	1.345	.293 (.227)	1.341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5 million won and more)	.022 (.221)	1.022	.037 (.223)	1.037
college characteristics				
grade point average	.259 (.089)**	1.295	.227 (.091)*	1.255
major field(liberal arts)	-.024 (.224)	.976	-.059 (.227)	.943
major field(social)	.389 (.144)**	1.475	.326 (.147)*	1.386
major field(education)	1.222 (.338)***	3.393	1.038 (.346)**	2.825
major field(engineering)	.908 (.155)***	2.480	.837 (.157)***	2.309
major field(natural)	.380 (.186)*	1.462	.279 (.191)	1.321
major field(medicine)	1.382 (.200)***	3.983	1.255 (.205)***	3.506
location(metropolitan)	-.221 (.105)*	.802	-.279 (.109)*	.756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number of qualification	.143 (.065)*	1.154
career-employment curriculum	-.207 (.119)	.813
work experience program	.060 (.130)	1.062
career counseling program	.072 (.132)	1.075
interview skills & resume description skills program	.284 (.128)*	1.328
employmentcamp	-.142 (.162)	.868
in-school job experience	.062 (.107)	1.064
employment goal status before graduation	-.089 (.106)	.915
job searchexperience before and after graduation	.289 (.106)**	1.335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147 (.244)	1.158
frequency of vocational training	.138 (.137)	1.148
N	3249	3249
-2log Likelihood	2641.214	2609.872
Model Chi-square	118.180	149.522

*p<.05, **p<.01, ***p<.001

5. 결론

전문대학생의 개인 특성과 대학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준비활동의 취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학점과 전공에 따라서 취업 효과에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점이 높은 것은 학생의 지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한편 성실성을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식이나 기술 못지않게 태도나 소양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충실한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공은 의약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순으로 정규직 취업 효과가 가장 높았는데 해당 계열들은 직결되는 국가 자격이 많아 자격과 관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만큼 학교 서열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문대졸자를 채용할 때 직무능력을 나타내는 신호로 국가자격이 중요할 수 있다.

둘째, 전문대학생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서 직업훈련은 효과가 없었고, 국가자격은 많을 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년의 취업준비활동으로 직업훈련보다 자격증 취득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은 박성재[8]의 연구와

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school to work 이행에 있어 직업훈련보다는 자격증이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박성재[8]는 이런 현상을 현행 우리나라 직업훈련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직업훈련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훈련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점 취득 등 정규교육과의 연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자격증 취득 선호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셋째, 면접기술 & 이력서작성 프로그램 참여와 졸업 전 후 구직활동 경험이 취업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준비에 적극적인 학생이 직접적인 구직기술인 면접과 서류전형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직활동도 일찍 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면접기술 & 이력서작성 프로그램이 비교적 졸업학년 전문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영향일 수도 있다. 전문대학생의 취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졸업 전 1년 동안 구체적인 구직기술을 익히고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그 외 대학의 진로선택과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은 직접적인 취업 효과가 없었는데 그 해석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진로 관련 내용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이나 진로효능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직접적인 취업 효과는 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전문대학생들이 2-3년의 짧은 재학기간 동안 저학년 때는 진로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효능감이나 진로결정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선행 과정을 거친 후 졸업학년에는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실질적 취업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으며, 전문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른 차원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정규직 취업으로 한정하여 활용했으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취업 비중이 높은 측면을 반영해 취업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고용형태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직장 규모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의 취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직업훈련의 분야, 종류, 방법 등 내용을 세분화하여 취업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S. H. Kang, H. S. Noh, "The Effect of Job Training in Korea on Employment and Wage", The Korean Labor Economic Association, pp.127-151, 23(2), 2000
- [2] J. G. Koo, S. H. Kang,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d vocational qualifications", Seoul: WooJung D&P. 2011.
- [3] K. H. Kim, "The Effect of Schooling and Training Participation on Wage of Employed Worke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p.123, 41(3), 2009.
- [4] B. S. Kim, Theory of Vocational Information, Seoul: Sigmappress, 2007.
- [5] J. S. Kim, "The Difference of Pre-employment Activities and Its effect on Transition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Education & Science, pp.141-165, 40(1), 2009.
- [6] H. K. Kim & J. H. Kim, "The effect of mismatch in degree field on wage", Applied Economics, pp.47-71. 11(1), 2009.
- [7] K. Y. Park & Y. M. Chun,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in the Graduates", Journal of Employment & Occupation, pp.29-59, 3(1), 2009.
- [8] S. J. Park,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Acquisition of the Youth on Their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Ph. D.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4.
- [9] H. B. Park & S. S. Kim,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Individual Background, Employment Efforts, and University Selectivity on Labor Market Outcomes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The Research of Sociology of Education, pp.77-98, 21(3), 2011.
- [10] H. J. Bae & J. K. Ahn,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repeating a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on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The Research of Sociology of Education, pp.25-51, 23(1), 2013.
- [11] H. J. Soe, "Analysis of Personal and College Effects on the Employment Outcomes of College Graduates", Ph. D.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4.

- [12] S. J. Lee, “The empirical study on the evaluation of education, training, certification”, Ph. D.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13] S. G. Lee & K. O. Sohn & J. K. Kwon, “Determinants of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Retention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p.25-49, 45(1), 2013.
- [14] Y. M. Lee & S. Y. Lee & J. Y. Lim,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llege Graduates’ Entering of Preferred Organizations : Focusing on Their Job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pp.337-374, 53(1), 2014.
- [15] J. C. Lee(2013).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career education and employment career program”,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Spring Symposium, 2013.
- [16] K. Y. Jang, “Determinants of the first job attainment for college graduates in Korea :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preparedness”, Ph. D.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8.

최 선 미(Sun-Mi, Choe)

[정회원]



- 2001년 8월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사회복지 석사)
- 2011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 수료
- 2011년 9월 ~ 현재 : 인덕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강사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정보